

민족혼과 민중의 숨결로 짓는 '한국사'의 큰 집

《한국사 이야기》 4권 펴낸 이이화씨

‘역사(歷史)와 씨름하는 역사(力士)’. 작달막한 키에 다듬지 않은 수염, 수더분한 촌로의 풍모. 언뜻 보기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모습이 역사학자 이이화(61)의 학문과 삶을 상징한다. 그가 칩거생활 4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 《한국사 이야기》(한길사) 4권을 세상에 내보냈다. 민족의 기원에서 발해와 신라 말기까지 아우른 《우리 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나》·《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를 찾아서》·《삼국의 세력다툼과 중국과의 전쟁》·《남국 신라와 북국 발해》가 그것. 전24권으로 기획된 ‘한국사’라는 큰 집의 대문을 연 셈이다.

세상과의 단절 속에 필생의 업 시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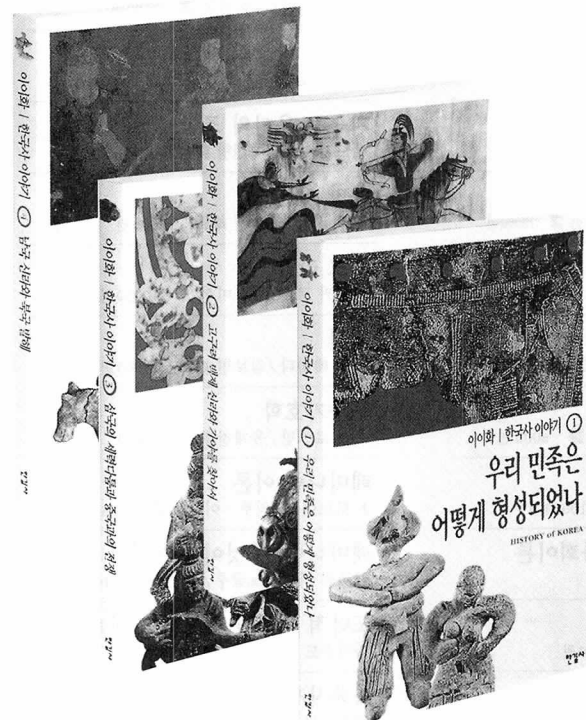
“4년 전 한길사에서 한국사 통사의 집필을 제의해 왔을 때 망설였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역사학도로서 통사는 누구나 꿈꾸는 일입니다. 미력하나마 필생의 업을 집대성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사 이야기》는 우선 그 수량적 측면에서 우리를 압도한다. 우리 민족의 기원부터 1945년 민족해방까지 아우르는 5천년의 역사. 95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까지 이어질 9년의 집필기간. 매년 4권씩 6년에 걸쳐 나올 24권의 두께. 권당 80~90쪽에 이르는 화보와 사진자료. 더구나 한 개인의 절차탁마에 의해 우리 역사의 전경이 유장한 이야기 가락으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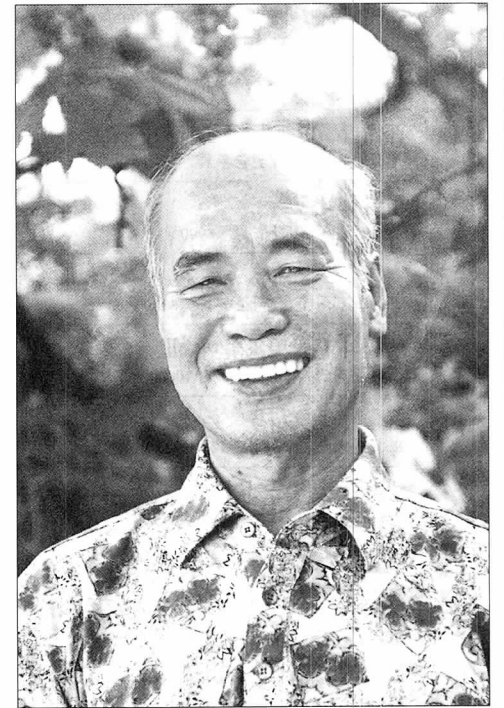
이번에 출간된 4권은 최근의 인류학과 고고학의 연구성과와 발굴유적 등을 토대로 만주와 한반도에 터잡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복원하고 고대사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특히 지금까지 역사연구의 변방으로 홀대받던 가야사와 발해사를 복권시키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막대한 에너지와 자료의 섭렵이 필요한 작업이었으므로 웬만한 결심으로는 엄두도 못낼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했습니다.”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그가 독하게 마음먹고 은둔생활을 시작했다. 맨 처음 낙점된 곳은 전라북도 장수 연화분교. 폐교된 학교 교사 한켠에서 밤새 울어대는 매미소리와 씨름하고 손을 곱게 하는 추위와 싸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기에 한국사 통사 집필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역사학도로서 누구나 꿈꾸는 일기에 미력하나마 필생의 업을 집대성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영웅이나 지배집단이 만들기보다 민중들의 삶 자체라는 생각에 특히 민중의 삶의 현장을 서울의 기본골격으로 삼았지요.”



야 했다. 마을 이장의 극진한 정성도 큰 힘이 되었다. 3년을 씨름하고 나서 김제 월명암으로 거처를 옮겼다.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기 위해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치열한 실사구시 정신을 마음에 새기기도 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역사서들은 정치·경제·사회사와 문화·예술·생활사가 따로 노는 불구적 형식이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버성긴다. 각 시대의 총체적 역사상을 유기적으로 엮어내기 위해 정치·경제사와 문화·생활사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냈다.

“역사는 각 시대마다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발전합니다. 이러한 역사상을 통시대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수한 역사적 사실들을 일관되게 통어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발전방향을 의식하고 행동한 개혁지향적 인물과 사건은 강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축소하거나 비판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역사는 어느 영웅이나 지배집단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역사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민중들의 삶 자체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민중들의 삶을 서술의 기본골격으로 삼았다. 삶의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다음 시대로 이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어디에서 살았으며 또한 무엇을 생각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했다.

역사서술의 과학성과 객관성의 관건은 엄

정한 사료비판에 있다. 구한말 한학의 대가였던 부친 야산 이달로부터 물려받은 한적해독능력이 사료해석의 엄정성에 밑받침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사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금석문을 참조하거나 역사의 현장 곳곳을 누볐다. 89년부터 9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유적을 돌아보기도 했다.

운명처럼 발닫게 된 역사학의 길

그의 생애와 학문을 규정짓는 것은 밀바닥 삶의 체험과 재야학자로서의 꾸준한 대쪽기질이다. 어려서부터 부친에게 한학을 배웠으나 신식문물에 매료돼 열여섯살에 가솔, 고아원·보육원·여관과 다방 등을 전전하면서 민중의 삶을 만났다. 계속적인 방황과 빈한했던 청소년기를 마감하고 동아일보,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서울대 규장각 등에 봉직하면서 거의 운명처럼 역사학의 울창한 숲에 발을 들여놓았다.

한길사가 주최했던 역사기행과 역사강좌에 핵심멤버로 참가하면서 역사 대중화의 물꼬를 댔고, 소장 학자들의 이론적 진지였던 역사문제연구소 소장과 《역사비평》 편집인으로서 근현대사 연구성과를 발굴해 우리 역사학의 청년혁명을 이끌었다. 1994년에는 동학 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인생역정과 학문적 저력을 바탕으로 《동학농민전쟁 인물

열전》, 《역사와 민중》, 《허균》 등의 책을 펴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권력에 순응하거나 추종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민중운동에 헌신하지도 못했어요. 이는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에 대해 배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일제시대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권력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부친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느 문학평론가의 말을 차용한다면, 이 책이 빛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자기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상처를 겨안은 채, 그 상처로 역사라는 집을 짓는 과정과 모습을 눈물겹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동은 아직 절반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가 가야 할 길은 이제 그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오는 24일에는 한길사와 교보문고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이화 역사대강연회’에서 ‘나는 왜 한국사 이야기를 썼는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28일부터 8월 3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단동부터 연대까지 고구려 발해 유적을 답사하는 ‘가자, 발해로! : 이이화와 함께 떠나는 고구려 발해 대탐험’에 참가해 현장강의와 함께 역사 대토론회에 연사로 참여한다. 역사가 현재의 삶과 만나는 현장에서도 그의 역사(力士)로서의 기질은 결코 고갈되지 않은 채 독자들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 박천홍 기자